

전남서부보훈지청, 목포서 '5·18민주문화제' 개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주제
7일 5·18 사적지 오월길 걷기
역사 골든벨·토크콘서트 마련**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향숙)은 5월 한 달간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고자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는 주제로 5·18민주문화제를 개최한

다고 2일 밝혔다. 이번 5·18민주문화제는 오는 7일 '목포 오월길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목포지역 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역사 골든벨' 행사가 8일과 16일, 24일 각각 3차례 진행되고, 22일에는 '5·18 토크콘서트'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먼저 '목포 오월길 걷기'는 7일 목포여자중학교 학생 등 60여명이 목포역을 비롯한 5·18사적지 5곳을 해설사와 함께 직

접 걸어보며 오월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구성된다. '민주역사 골든벨'은 목포시 소재 중학교 3개교에서 진행되는데, △목포정명여자중학교(8일)△목포덕인중학교(16일)△목포유달중학교(24일) 학생들이 참여한다. 골든벨 퀴즈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다. 마지막으로 '5·18 토크콘서트'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관 1층 소강당에서 시민·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5·18연구소 전임교수인 김희송 교수(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와 한국사 선생님이로 잘 알려진 서부원 교사(살레시오 고등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해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한다. 참

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토크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다.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 온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문화제가 5·18민주화 운동이 왜 우리 모두의 오월로 기억되어야 하는지, 5·18민주 정신을 왜 자자손손 이어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재정난' 광주시,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미반영

**세수감소 이유 604억 편성 못해
교육청 "추경 예산에 이미 편성"
'미스매치' 추정... 시의회 '난감'**

광주시가 재정난으로 광주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본 예산에 이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아 두 기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두 기관 간 추경예산안에 착오가 생기자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의회만 난감해진 상황이다.

2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법정전입금을 매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3087억원 중 1100억원만 반영했고, 올해 1차 추경에도 1382억원만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법정전입금 604억98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전입금 일부만 편성했으며,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양해를 구했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은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보통세)를 거둬들여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으

로 광주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문제가 발생했다.

광주시가 법정전입금 604억98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당연히 받을 예산으로 보고 추경에 604억98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다음 추경에 미반영된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시교육청은 광주시의 이번 추경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법정전입금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추경예산안에 착오가 생기자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의회만 난감해진 상황이다.

의회가 시청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교육청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야 하고, 반대로 교육청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시청의 예산안을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

또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추경안에 604억9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거나, 광주시와 교육청의 미스매치 추경안을 그대로 의결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 처럼 재정난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 때 편성하지 못한 곳은 대구, 경남, 경북 등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전남도, 중국 시장 개척... 13만 달러 수출협약

상하이·베이징서 수출상담회

전남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과 함께 지난달 26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 베이징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324만 달러 수출 상담과, 3건 13만 달러의 수출협약(MOU)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는 중동발 전쟁 확산 우려, 주요국 긴축재정 등에 따른 국제적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김, 유자차, 해조류 가공품, 소스류 등 농수산식품 9개 사, 화장품 1개사를 파견했다. 이들 기업은 135개 현지 바이어와 총 324만 달러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너스인터네셔널은 마백크림 화장품을 상하이에서 5만 달러, 베이징에서 3만 달러 등 총 8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했다. 해미푸드는 해초면을 베이징 바이어와 5만 달러 규모 수출협약을 했다.

또 바다명가와 대륙식품, 완도만, 완도

바다에서는 김, 전복, 해조류 가공품,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과 녹차원에서는 녹차, 유자차, ㈜해정정은 해조류 국수면, 매일식품은 라면, 소스류 등을 출품해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하이 무역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 우수상품 샘플 전시회와 왕홍 인플루언서 누리소통망(SNS) 홍보 판촉 행사 등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 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국은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하는 거대 소비 시장이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로 하반기부터는 투자와 소비가 회복될 전망"이라며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수출 확대에 연결되도록 지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 수출상담회에는 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10개 기업씩 총 20개 수출기업이 참여했다.

곽지혜 기자



동구새마을회 폐품 모으기 광주시동구새마을회 김대영 회장과 새마을 지도자, 임택 동구청장 등이 2일 동구청 주차장에서 탄소중립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고철, 폐지, 캔, 헌옷 등을 각 동별로 수거해 모으고 있다. 이날 수거한 1.8톤의 재활용 판매수익금 200여 만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교육청, 디지털 역사관 운영 '도마 위'

**2019년부터 45개 학교서 운영
이용자 없는데도 '만족도 높음'
매년 5억 투입...특정업체 독식**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역사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매년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용자 수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귀순(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2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 역사관 현장을 돌아보면 불이 꺼져있는 게 대다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의 사업평가상 만족도는 높음으로 나왔다"며 "디지털 역사관이 구축된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5년째 운영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있는지 이

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역사관'은 학교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화해 보존하고 열람을 쉽게 하기 위해 콘텐츠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2억6000만원 가량이다.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3개 등 45개 학교가 1700만원씩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부터는 2000만원씩을 지원받는 등 매년 약 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왔다.

디지털 역사관은 개관 직후에는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찾아 '반짝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지만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방문자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불이 꺼진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만족도를 '높음'으로 평가해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박철신 광주시교육청 정책 국장은 "만족도라는 게 학생들의 사용 빈

도수 여부와 지속적인 사용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만 디지털 역사관이라는 특성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습을 유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재방문 여부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 편성 직후에도 지적받았던 수의계약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누리집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업체가 역사관 디스플레이(600만원) 공사를 하고, B 업체가 역사 콘텐츠 제작(1400만원)을 하는 방식으로 짜 맞추듯 수의계약으로 따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들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도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전남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읍면동·온라인 '복지로' 신청

전남도는 발달장애인가정의 상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2일 밝

혔다.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친구·동료만나기, 음악·미술·문화활동, 요리, 운동 등 1일 6~8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8세 이

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다만 취업 및 직업 훈련, 거주시설 입소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전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061-802-1067)에서 문의하면 된다.

곽지혜 기자